

# 나만의 그림색깔을 찾기 위한 기나긴 여정

## 일본풍 그림에서 벗어나 새로운 스타일로 출발하기까지

이원복

덕성여대 교수 · 산업미술학

평생의 업이 된 만화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지금 생각해도 참으로 우연이었다. 나이 먹은 티를 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렸을 적엔 별다른 놀이가 따로 있지 않았다. 골목으로 나가 아이들과 어울려 그냥 놀든가, 그게 싫으면 방바닥에 뒹굴면서 낙서나 그림을 끄적이던 게 고작이었다. 라디오 가진 집도 몇 안되었고 TV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에야 등장했던 시대였으니 모두가 가난했던 시절, 제대로 읽을 책조차 없던 처지엔 종이엔 연필로 온갖 것을 끄적이던 것이 내 어린 시절의 그림이었다. 자연 활동사진이나 만화에서 보았던 주인공들 흉내 내는 게 전부였지만 주변에서 보기엔 꽤나 신기했던지 그림에 재주가 있는 아이라고들 했다. 하도 많이 그려대다 보니 손에 익었을 따름이다.

그런 연유로 중학교에 다니면서 가끔 독자란에 투고하기도 했고 한 번인가 실린 적도 있지만, 결국 만화가라는 직업을 가지리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다. 매스컴과는 인연이 있었는지 아니면 관심이 있었는지 중고등학교 때 신문반 활동을 했고 자연히 학교 신문만화를 도맡아 그리게 되면서 동기생들로부터 어느샌가 '만화 잘 그리는 아이'로 통하게 되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였다. 신문반 1년 후배의 아버님이 어느 어린이 신문사 주간으로 있어 하루는 그 애를 따라 신문사에 놀러가게 됐다. 그것이 만화와 인연을 맺는 계기가 될 줄이야.

### 베껴그리기의 단순노동에서부터

학교 신문만화를 그린다는 소리를 들은 친구 아버지가 대뜸 하는 말씀이 "마침 잘 됐다. 너 아르바이트 좀 해라!"였다. 아르바이트란 말의 진정한 의미도 모르고 또 돈을 벌게 된다는 사실이 전혀 실감으로 와닿지 않은 가운데 집으로 안고온 첫 일감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 미국만화 《아이반호우》(윌터 스콧 원작 후기사)였다. 말하자면 친구 아버지는 인건비가 싼 고등학생에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맡겨 경비를 절감하려는 것이었다. 결국 내가 재능이 있거나 미래에 가능성이 보여서는 아니었다. 그 일이란 미군부대에서



배경을 생략하고 선을 단순하게 써 다양한 표정으로 재미를 살린 《만나라 이웃나라》의 그림체와 일본색이 묻어 있던 해도 청년시절 온갖 정열을 쏟은 미담집이라 애정이 가는 《사랑의 학교》.

흘러나온 미국만화에 트레이닝지를 대고 먹으로 그리는 작업이었고 신문사에서 우리말로 번역된 대사를 말칸에 베껴 쓰는 단순한 '육체노동'이었다. 어쨌거나 이일로 나는 난생 처음 3천원이란 거금(62년도니까 학생으로서는 꽤 큰 돈이었다)을 손에 쥐었고, 또 아마추어 경력 없이 그대로 프로로 입문한 웃지 않을 수 없는 묘한 경력을 가지게 된 셈이다. 이때 받은 3천원 가운데 1천원은 호기 있게 형에게 떼어주고, 나머지 돈으로 그때 막 개봉한 '벤허'도 보고 영한사전도 한권 샀던 기억이 지금까지 뇌리에 생생하다. 또한 고등학교 1학년의 몸으로 돈맛을 알게 된 것도 고3 때까지 아르바이트를 계속하다가 결국 재수까지 하게 된 원인이었으니. 말하자면 외국만화 '불법복제'로 시작된 아르바이트는 당시 막 붐이 일기 시작한

일본만화를 복제하라는 주문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때 물 건너온 일본 만화주간지 《소년 마가진》, 《소녀 구라브》의 만화는 기라성 같은 일본 만화작가들의 수작 대잔치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지금 일본 만화계의 거성인 그들의 당시 작품은 한마디로 예술의 경지였다. 지금 일본만화는 상당히 상업주의에 오염된 대중만화의 쓰레기가 된 부분도 많지만 당시엔 만화철학이란 말이 나오는가 하면 만화주인공이 죽으면 잡지사 앞에서 진짜 장례식이 열릴 정도로 작품도, 작가도, 독자도 진지했다. 만화의 깊이와 재미에 폭 빠진 나는 편집자의 주문에 따라 참으로 많은 일본만화를 베껴했다. 저작권 개념도 없을 때고 또 들통날 염려도 없던 시대였던 만큼 대학교에 들어가기까지 일본만화는 아르바이트의 젖줄이었고, 자연히

일본 만화를 복제하는 아르바이트로 시작한 만화그리기. 그림체가 일본식으로 굳어져 도서히 고칠 수가 없을 지경이 되고 말았다. 그림체를 바꾸겠다는 결심으로 서른이 다된 나이에 독일로 유학을 떠났고 밀바닥부터 새로 시작했다. 연구끝에 만들어낸 나만의 스타일, 지금도 그 그림체를 즐기고 있다.

내 그림체가 백퍼센트 일본풍으로 굳어지게 되었던 것은 너무 당연한 결과였다. 그런데 대학 2, 3학년이 되면서 뭔가 세간 물정에 눈뜨게 되고 손에 익은 그림이 어느 정도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되자 차츰 일본만화를 베낀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하게 되었다. 더욱이 철저하게 반일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였던 만큼 세상 모든 나라는 상관없어도 일본에게만은 질 수 없다는 것이 우리세대 공통정서였다. 일본만화를 베낀다는 것 자체에 크나큰 수치를 느끼게 되었다. 그러나 어찌하랴, 기초도 전혀 없이 만화라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원고료 생기는 재미에 엄청나게 많은 그림을 그려왔는데 그 원본이 일본만화라 그림체가 일본식으로 굳어져 도서히 고칠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으니.

**독일유학으로 밀바닥 과정부터 다시 시작**  
결국 그림을 바꾸겠다는 결심은 독일 유학으로 나타났다. 독일에 가게 된 것도 엄청난 목표나 야망 때문이 아니라, 우리 형제들이 당시 등록금이 없는 독일로 떠났고, 먼저 가 있던 형님이 나까지 불러들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왕 독일에 건너가자 지금이야말로 자존심을 걸고 일본풍 그림체를 고쳐야겠다는 생각에 서른이 다된 나이에 아예 미술대학에 입학 시험부터 다시 치고 들어가게 되었고, 가장 밀바닥 과정부터 완전히 새로 시작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에도 서울에 계속 원고를

# 마음이 오간 듯 상쾌한 글

김달진 산문집 《산거일기》를 읽고

정민 · 한양대 국문과 교수

보내 생활비를 벌며 썼고 그 사이 그림체도 조금씩 바뀌어 나가기 시작했다.

일본풍 그림체를 완전히 집어던지고 내 스타일로 출발한 계기가 바로 《먼나라 이웃나라》(고려원)의 집필이었다. 81년부터 86년까지 어린이 신문에 연재한 만화인데, 이 만화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하면 일본냄새를 완전히 배제하고, 또 대단히 영악스런 생각이지만 어떻게 하면 시간 많이 들이지 않고 그릴 수 있는가 연구하다가 만들어낸 그림체가 바로 《먼나라 이웃나라》 스타일이다. 가급적 배경을 생략하고 선을 단순히 쓰며 다양한 표정으로 재미를 살리며 충분히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스타일- 이런 여러가지 계산 아래 지금의 그림체가 만들어진 것이고 또 즐겨 그리고 있다.

초창기 때, 그러니까 독일로 떠나기 전후의 작품들은 웬만하면 다시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 작가로서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난받아 당연하지만, 마치 모자라고 덜 떨어진 아이 낳은 것처럼 일본풍 그림을 그린 시절에 낫이 붙어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전에 그린 만화들은 절대로 리바이벌시키지 않고 모조리 절판시켜 버렸다. 그런다고 그 흔적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오직 한가지 《사랑의 학교》(사랑의학교)란 만화만은 예외로 몇 년 전에 재출간했다. 작가의 진정한 뜻은 항상 새롭게 창작하는 것이지 먼지 쌓인 옛 원고 뒤적이는 게 아니라는 것이 소신이다. 그러나 《사랑의 학교》는 청년시절 온갖 정열을 다 쏟아 한 장 한 장 그려나간 미담집이다. 한국식 미덕과 가치관이 잘 반영된 것으로, 한때는 서구적 가치관과 충돌로 폐기되기도 했지만 '긴 여행에서 돌아와 거울 앞에 선' 지금 역시 우리식 가치관이 소중하다는 것을 되발견하고 다시 펴낸 책이다. 그림은 일본 색이 묻어 있어도 내게는 상당히 자랑스러운 작품의 하나이기도 하다. 표지에도 적혀 있듯 인세 수입은 모두 불우이웃을 위해 쓰겠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직 한푼도 인세를 받지 못해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이 약속만은 언젠가 반드시 지키려고 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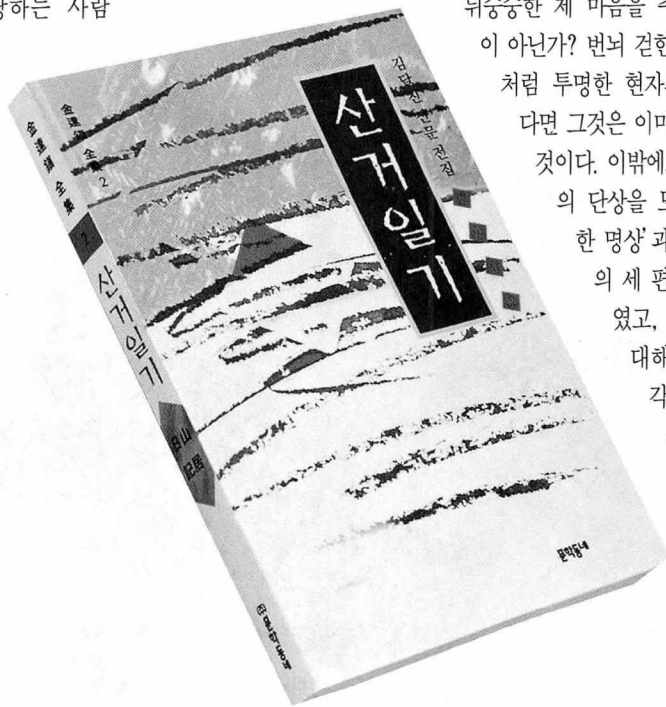
“어디서나 무슨 소식이 있을 듯하여 종일 기다렸으나 편지 한 장도 오지 않았다. 저녁 후에 과연 한 줄기 소나기가 왔다.”

김달진 산문집 《산거일기》 중 한 대목이다. 글 중에는 산문(山門)에 들어 번민은 더욱 심각해만 간다는 독백도 보이지만, 그가 기다렸던 편지 한 장의 속내보다, 그 막막한 기다림을 한 줄기 소나기로 응답하는 엇갈림이 내게는 더 상쾌하게 여겨진다. 또 이런 글도 있다.

“오후에 어제 하다둔 도벽(塗壁)을 마치다. 세상일이란 더러워진 벽인가? 닦을 줄 모르고 덮기만 한다.”

도배를 하다가 떠오른 메모다. 벽이 더러워지면 닦는 게 아니라 그 위를 그저 덮어 가리기에만 급급하구나.

꼭 껴안고 싶은 아침. 마루 끝에 나가 앉아보면 이마가 못 견디게 재글거리고 눈은 저절로 감긴다. 해가 오른다. 숲속에 황금의 부챗살을 편다. 나는 늙은 느티나무에 기대어 서서 따스한 햇볕을 이마 가득히 받아본다. 머리 위에 새소리가 금조각을 뿌린다. 물오른 나무 가지까지마다 새음이 툭툭 터지는 소리가 나는 듯하고, 마른 풀 잎새마다 숨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하다못해 하늘을 우러러 휘파람을 날리며 앞 개울가를 시름없이 거닐었다. 오래오래 떠나 있는 사랑하는 사람



이 책은 김달진 선생의

나이 34세 전후의 일기이다.

지금의 나보다 다섯 살

젊을 때로구나. 그래서인지

중간중간 젊음의 번뇌도 엿보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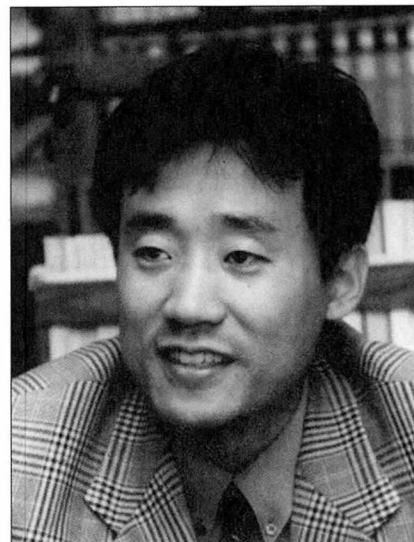
이성을 향한 마음의 자락도

불쑥불쑥 들여다보인다.

나는 그것이 읽기에 더 즐겁다.

일기란 원래 뒤숭숭한 제 마음을

추스리는 글이 아닌가.



정민 교수.

을 만나본 심정이 이렇다 할까? 내 가슴 속에는 어떤 알 수 없는 하나의 힘이 움직이고 있음을 나는 느끼었다. 호박빛으로 공기는 한껏 투명하였다.

선생의 글 여기저기서 한 문장씩 옮겨 따와 적어본 것이다. 《산거일기》는 선생의 나이 34세 전후의 일기이다. 지금의 나보다 다섯 살 더 젊을 때로구나. 그래서인지 중간중간 젊음의 번뇌도 엿보이고, 이성을 향한 마음의 자락도 불쑥불쑥 들여다보인다. 나는 그것이 읽기에 더 즐겁다. 일기란 원래 뒤숭숭한 제 마음을 추스리자는 글이 아닌가? 번뇌 견뎌 말끔한 하늘처럼 투명한 현재의 음성만 있다면 그것은 이미 일기가 아닐 것이다. 이밖에도 58세 전후의 단상을 모은 '삶을 위한 명상'과 그밖에 선생의 세 편 글을 수록하였고, 김달진문학에 대해 다섯 분이 각자의 방향에서 쓴 글도 함께 실려 있다.

책 속에는 밀줄처럼 읽고 싶은 구절이 많다. “승리와 패배는 오직 자기만이 아는 것이다.” “자기를 세우는 곳에 세계는 지옥화한다.” “얼음같이 살자. 그렇지 않으면 불같이 살자.” “삶이란 나날의 향상, 때때의 창조, 찰나찰나의 새로움이어야 할 것이다.” “겸손은 일종의 진공상태다.” “충고 속에 얼마나 많은 지배욕이 도사리고 있는가.” “새로운 꿈이 끊임없이 솟으리니, 나그네 길은 언제 끝나려나.” “생활을 단순화하라. 그러나 창조를 갖추지 않은 단순은 무료와 권태를 동반하는 위험이 있다.”

어제 책상머리에 붓글씨로 원효 스님의 ‘난인능인(難忍能忍)’, 즉 참기 어려운 것을 능히 참는다는 말을 써붙여 놓았는데, 선생의 글에도 “남이 참을 수 없는 바를 능히 참아야 비로소 남이 할 수 없는 바를 할 수 있을 것이다”란 구절이 있다. 공연히 마음이 오간 듯하여 내가 즐겁다. 마음으로 느낄 뿐 또 무슨 잔말이 있겠는가. 돌(똥)! ◆

문학동네/A5신/318면/7000원